

재무상담 및 재무교육이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

김창이 (한국재무설계 광주센터장)

황덕순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I. 서론

금융시장환경이 세계화, 융합화, 복잡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재무관리역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돈의 흐름인 금융은 다른 분야보다도 더 빠르게 변화한다. 특히나 본인의 생업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소비자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는 “생애에 걸친 소득과 자산으로 생애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가는 일련의 과정” (박종선, 황덕순, 2014, p.115)이다. 재무설계는 재정적 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재무목표들을 달성해 가는 과정으로 가계나 재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방향과 의미를 제공해 주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정된 재정자원을 가지고 본인의 결혼자금, 주택마련과 주택확장자금, 부채상환자금, 자녀교육자금, 자녀결혼자금, 은퇴자금 등의 꼭 필요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현명한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특히나 세계에서도 주목할 만큼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욱더 재무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과거보다도 고용이 더 불안정해져서 정식적인 은퇴가 아닌 정해진 은퇴 이전에 회사에서 쫓겨나는 반퇴세대들도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도 한다는 내용의 일간지 특집기사 시리즈도 있다(중앙일보, 2015. 1. 15).

과거와 다르게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저축에서 투자의 시대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퇴직금 제도의 변화와 함께 더욱더 재무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무상담과 재무교육이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재무상담 경험여부별, 그리고 재무교육 경험여부별로 연구대상자를 구분하여 소비자 재무관리역량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재무설계 실무에서 재무상담과 재무교육을 내실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재무상담

재무설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재무설계상담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오종윤, 최현자, 2010; 오종윤, 2011; 오종윤, 이지영, 최현자, 박주영, 2014; 조혜진, 최현자, 김민정 2013).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무설계 상담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재무상담(Financial Consulting)에 관한 연구를 고찰해본다.

오종윤 외(2010)는 ROTC에 임관하는 장교 135명을 대상으로 재무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재무상담을 받았던 장교들이 재무상담을 받지 않은 장교들에 비해서 월 저축액은 많았고, 투자자산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재무상담을 받았던 경험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종윤(2011)은 재무설계전문가를 통하여 재무설계상담을 받은 384명을 대상으로 재무설계가 가계재무복지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무설계상담경험은 객관적 재무복지 수준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객관적 재무복지지표의 향상은 주관적 재무복지 수준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종윤 외(2014)의 연구에서는 재무상담을 한 이후 저축과 투자 및 연금저축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변동지출 및 미파악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현자, 김민정, 김민정, (2008)은 재무설계의 필요성을 성공적인 은퇴생활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재무설계는 은퇴자가 건전한 자산상태를 유지하고 저축을 하는데 유용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재무설계의 방법 중에서도 부분적인 재무문제만을 컨설팅하는 상담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재무설계를 하는 경우, 은퇴당시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이 더 많았고, 보유자산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도 가장 길었으며, 월 소득과 저축액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무설계를 하고 있는 은퇴자들의 경우 2명 중 1명은 은퇴대비를 하고 있었고, 주관적인 재정적 복지 상태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은 소득이 충분하고 은퇴생활과 재정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월, 조향숙(2015)의 재무상담 전, 후의 가계소비와 저축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재무상담 후에 대다수 가계의 경제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분석결과 가계총소득, 가계총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향은 재무상담 전보다 후에 저축액이나 저축성향 모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혜진 외(2013)는 재무설계비용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결정요인을 분석했는데, 조사 대상 금융소비자 10명 중 4명이 재무설계전문가의 재무설계비용에 관한 지불의사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냈다. 특히나 개별소비자의 재무목표 중 은퇴설계와 투자부분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재무태도에서의 장기투자 및 수익추구 투자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김성숙(2008)은 저소득층가계의 재무적 문제와 재무상담 수요를 파악하고 저소득층가계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재무상담 참여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넘는 61.6%가 재무상담을 받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어 과거 재무상담 경험률 6.2%로 저조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재무상담 참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재무상담 참여에 대한 수요는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상담내용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통적으로 연령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소현 외(2012)는 2009년 펀드 투자자조사의 응답자 2,530명 중 약 19.4%가 재무상담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상담의 주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은 분야는 은퇴와 관련된 분야였다. 재무상담과 관련된 요인은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부동산자산규모, 금융자산규모, 부채규모, 증가전망, 투자자교육수혜여부, 및 상담료 지불의사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재무교육

재무교육(Financial Education)은 재무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재무문제를 예방하고 재무문제 해결 능력을 계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교육의 목표는 재무설계와 재무상담의 목표, 즉 장기적 재무목표의 달성과 단기적 재무문제의 해결능력 향상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차경옥, 최현자, 2006).

주소현(2008)은 종업원 재무교육 이후에 어떠한 행동의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9%가 기존과는 다른 재무행동의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투자방법을 바꾸었다(43%)고 응답하였다.

안창희(2006)는 재무행동과 재무관리스트레스, 재무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재무교육은 재무실천행동, 주관적 경제복지, 재무스트레스, 재무위험감수도의 수준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행동은 재무관리스트레스를 줄이고 재무상황만족도와 미래준비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재무교육을 받은 집단에서는 저축행동과 재무만족도의 관계에 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재무교육이 저축행동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재무만족도를 높인다는 것도 밝

혀냈다.

성영애(2012)는 재무교육과 재무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선호도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재무교육과 재무상담에 대한 평균 요구도는 모두 높은 편이었다. 주제별 요구순위를 살펴보면, 노후설계방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절세방법, 주택마련, 부동산투자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으로 요구도가 높았다고 한다.

김종모, 박상범(2013)은 재무교육의 필요성이 경제적 노후생활인식과 신체적 노후생활인식이 경제적 은퇴준비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평소 경제적, 신체적 노후생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수록 노후 경제활동에 대한 은퇴준비 상황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재무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낄수록 경제활동에 대한 은퇴준비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재무교육의 결과품질과 과정품질은 사회적 노후생활준비가 재정주거 및 경제활동에 대한 은퇴준비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긍정적 조절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현자, 조혜진(2011)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금융이해력이 재무행동과 금융교육 및 인구사회학적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둘째, 금융교육관련 변수에 대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 4년제 대학을 다니거나 전공이 경제/경영이거나 금융관련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가 높았다. 결과적으로 금융교육이 대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안창희, 정순희(2009)는 자산수준별로 재무교육이 재무행동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재무교육은 자산이 많은 집단이나, 중간자산 집단보다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자산 집단의 주관적 재무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알아냈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저자산집단에 포함된 가정의 복지수준이 더 추락하여 가족문제와 가계파탄까지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저자산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교육이 더 비중 있게 요구된다고 하였다.

3. 재무관리역량

‘역량(competency)’이란 본래 직업훈련이나 교육학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용어이다. 최근 들어 역량이라는 것이 소비자학과 같이 근본적으로 인간과 생활에 관심을 갖는 학문 영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OECD(2003)가 역량의 개념을 인간의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삶의 복지 향상을 꾀하는 소비자학으로 하여금 역량에 관한 논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단초가 되었다(김정현, 최현자, 2012, 재인용).

먼저 소비자역량의 개념정의는 소비생활의 맥락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의미하며, 소비자역량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70년대 초반 이후 McClelland (1973)에 의해 개발된 ‘역량’이란, 특정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뛰어난 수행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외적인 특성과 내적인 특성을 종합하여 지칭하는 용어이다. ‘역량’이 단순히 ‘지식’ 수준을 측정된 것보다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주효하다고 주장했다(McClelland, 1973). ‘역량’의 개념을 바탕으로 ‘소비자역량’의 조작적 정의를 마련했다. 소비자역량이란, 개인이 다양한 소비활동의 장에서 적절하게 역할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역량 또는 능력으로서 소비자역할을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의 총체로서,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실천적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이기춘, 1999).

소비자 역량의 개념을 준용하여 소비자재무관리역량을 정의하자면, 넓은 의미로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이란 특정 맥락, 즉 재무환경 혹은 금융환경 하에서 소비자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2008)는 소비자역량지수 개발 및 산출 연구에서 소비자재무역량을 소비자역량의 영역 중 하나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소비자재무역량이란 소비자가 합리적인 재무관리에 필요한 지식이나 바람직한 실천태도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역량을 뜻한다.

배순영, 천현진(2010)은 ‘소비자역량’을 ‘변화하는 소비생활 속에서 현명하고도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잠재적, 실천적 역량’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역량의 개념을 소비자재무관리역량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에서 수행한 일련의 재무관리역량(Financial Capability) 관련 연구들을 들 수 있다. 2005년에는 재무관리 역량에 관한 대규모 서베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이후로도 관련 연구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FSA(2006)에 의하면,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은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술, 재무관리태도가 결합되어 재무관리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각 요인에는 개인의 경험이나 경제형편, 개인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보다 더 폭넓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재무관리역량의 개념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먼저 재무관리역량(Financial Capability)의 세 가지 요소를 도출해 내었는데, 소비자재무관리역량은 개인의 경험, 상황, 성격이 반영된 세 가지 요인-재무관리지식과 이해(financi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재무관리기술(financial skills), 재무관리 자신감과 태도(financial confidence and attitudes)-이 결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재무관리역량은 재무관리행동을 통하여

측정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정현, 최현자(2012)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에 기초한 결론은 소비자들의 재무관리역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무관리역량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중에 지식역량점수가 가장 높고, 기능역량점수가 가장 낮아 재무관리에 있어서 실천적 역량의 부족이 입증되었으며, 특히나 은퇴설계와 위험관리 및 저축과 투자 등의 영역에서 역량점수가 저조한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최현자, 김정현(2010)는 일반소비자와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을 대상으로 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였으며, 금융채무 불이용자와 일반소비자의 재무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거의 모든 재무적 변수에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은 소득이나 자산은 적은 반면 부채부담이 높고 가계수지가 나빴으며 그 차이도 유의하였다.

최윤나(2012)는 노인소비자를 위한 재무관리역량(Financial Capability)척도를 만들기 위하여 기존의 재무관리 역량의 척도를 재구성하였고,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실태를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재무관리 구성요인 중에서 재무관리지식 역량이 다른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김정현, 최현자(2012)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비자재무관리역량(Financial Capability)의 수준을 조사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기능역량에만 차이가 있어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기능역량이 더 잘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지식역량에만 차이가 있어 30대 이상인 경우에 지식역량이 높아졌다. 직업군별로는 학생일 경우 지식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태도, 지식, 기능역량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최현자, 김정현(2010)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일반소비자는 연령, 학력, 직업, 거주지, 성별, 결혼상태, 맞벌이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소비자에 비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은 연령이 주로 40~50대인 경우 그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인 사람들이, 직업은 서비스/판매직이나 기능/단순노무직인 경우가 많았다. 성별은 남자, 결혼 상태는 이혼/사별인 경우, 맞벌이 보다는 외벌이인 경우가 많았다.

김효정(2008)은 경남 및 부산지역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지식, 소비자역할태도, 소비자기능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생활 관련 기사 및 내용에 대한 관심도가 소비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소비생활에 대한 대중매체의 기사나 내용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소비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인 소비생활은 소비자 능력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민희, 홍은실(2014)은 여성소비자의 소비자역량이 결혼의 경험여부에 따라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성인여성의 결혼여부에 따른 소비자역량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결혼여부에 따른 소비자역량의 영역들 모두 기혼여성이 미혼여정보다 소비자역량 점수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소비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한 결과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과 기능적 가치임을 밝혀내었다. 그래서 성인여성의 소비자역량은 심리적 변인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서울특별시와 6대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3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22일까지 온라인 서베이 업체 ‘나우앤피쳐’를 통해서 진행하였다. 설문문항의 난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예비조사 30부를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진행했으며,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2015년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본 조사 300부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사전조사 30부와 본 조사 300부 중에 불성실한 답변을 한 1부를 제외하고 329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재무상담 및 재무교육이 가계재무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재무상담과 재무교육의 유용성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재무상담 경험별 특성은 어떠한가?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재무상담경험에 차이가 있는가?

1-2 재무상담 경험여부에 따라 재무관리역량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재무교육 경험별 특성은 어떠한가?

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재무교육경험에 차이가 있는가?

2-2 재무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재무관리역량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재무상담 및 재무교육 경험이 재무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변수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재무관리역량은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기능으로 하위범주화 하여 요인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재무관리역량이란 소비자가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시장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환경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적응하며 자신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서, 건전한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의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기능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기능에 관한 문항들은 김정현(2011)의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및 지수 개발 연구’ 논문을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재무관리지식 척도는 김정현(2011)의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및 지수 개발 연구’의 44개 문항 중에서 내용요소에 해당되는 18개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하였고 나머지 6문항은 각 하위영역별로 연구자가 내용요소에 적합한 문항들을 추가하여 총 24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응답자가 문항에 O/X로 답하도록 구성하였다<표 3-1>참조.

<표 3-1> 재무관리지식

측정내용	문항수
수입과 지출의 관리	3문항
신용과 부채관리	3문항
저축과 투자	5문항
위험관리와 보험	4문항
노후설계	4문항
금융환경과 재무관리의사결정	5문항
재무관리지식 문항전체	24문항

평소 응답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재무관리지식에 관한 문항들로 이루어졌으며 그 하위범주로는 ‘수입과 지출관리지식’에 관한 4문항, ‘신용과 부채관리지식’에 관한 4문항, ‘저축과 투자지식’에 관한 6문항, ‘위험관리와 보험지식’에 관한 5문항, ‘노후설계지식’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답에 1점, 오답에 0점을 주어 재무관리지식은 0점부터 24점이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관리지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재무관리태도는 5점 리커트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김정현(2011)의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및 지수 개발 연구’의 22개 문항 중에서 내용요소에 해당되는 20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하위범주로 구분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3-2참조>.

<표 3-2> 재무관리태도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N	문항수	Cronbach' s α
계획관리태도	329	8문항	.84
신용과부채관리태도	329	6문항	.79
미래대비태도	329	6문항	.80
재무관리태도전체	329	20문항	.86

요인분석 결과 총 3개의 하위변수로 구성하였다. 재무관리태도의 하위변수 중 ‘계획관리태도’는 평소 재무관리를 하는 태도 중에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내용에 관한 질문들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alpha=.84$). 또 다른 하위변수 중 ‘신용과 부채관리태도’는 평소 재무관리를 하는 태도 중에서 신용과 부채를 관리하는 내용에 관한 질문들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alpha=.79$). 하위변수 중 ‘미래대비태도’는 평소 재무관리를 하는 태도 중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내용에 관한 질문들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alpha=.80$).

재무관리기능은 5점 리커트척도로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김정현(2011)의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및 지수 개발 연구’의 40개 문항 중에서 내용요소에 해당되는 23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하위범주로 구분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3-3>참조.

<표 3-3> 재무관리기능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하위요인	N	문항수	Cronbach' s α
계획관리기능	329	7문항	.89
금융환경대처기능	329	5문항	.83
일상적 재무관리실천기능	329	8문항	.81
위험관리기능	329	3문항	.78
재무관리기능전체	329	23문항	.93

재무관리기능의 하위변수 중 ‘계획관리기능’은 평소 재무관리를 하는 기능 중에서 재무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재무관리를 하는 내용에 관한 질문들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alpha=.89$). 또 다른 하위변수 중 ‘금융환경대처기능’은 평소 재무관리를 하는 기능 중에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는 기능에 관해서 묻고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alpha=.83$). 하위변수 중 ‘일상적재무관리실천기능’은 평소 재무관리와 관련하여 평소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재무관리실천기능에 관해 묻고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α

=.81). 하위변수 중 ‘위험관리기능’은 재무관리와 관련하여 위험관리기능에 관해 묻고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alpha=.78$).

2) 설명변수

본 연구는 재무상담과 재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재무상담은 개인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재무목표달성을 위해 자산배분과 계획을 제시해주는 상담서비스이다.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상담,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방법, 노후설계방법 등과 같은 내용을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교육은 재무관련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재무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말한다. 단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목적으로 받는 교육은 제외한다.

3) 인구사회학적변인

성별은 남녀로 구분하여 남성을 참조변수로 여성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연령은 연속형 변수를 사용하였고, 교육수준은 ‘대졸미만’을 참조변수로, ‘대졸이상’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가계의 월 평균소득은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을 참조변수로 ‘배우자 없음’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직업은 ‘사무/전문/관리직’을 참조변수로 사용하였고, ‘기술/생산/서비스직’과 ‘전업주부’, ‘기타’ 등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재무상담경험이 없는 집단’을 참조변수로 사용하였고, ‘재무상담경험이 있는 집단’은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tata 13.1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관리역량 중 재무관리기능과 태도를 하위범주로 분류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뒤, 분류된 하위변수들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배경과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재무상담 및 재무교육의 경험에 따라 재무관리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분석을 병행하였다.

넷째, 재무상담 및 재무교육의 경험이 재무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3-4〉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사례수 : 329)

변 수		빈도(평균)	백분율(표준편차)
교육수준	대졸미만	122	37.08
	대졸이상	207	62.92
직 업	사무/전문/관리직	196	59.57
	기술/생산/서비스직	51	15.5
	전업주부	49	14.89
	기타	33	10.03
배우자유무	배우자있음	221	67.17
	배우자없음	108	32.83
주택소유여부	자가	200	60.79
	비자가	129	39.21
성 별	남성	146	44.38
	여성	183	55.62
연 령		39.98	9.45
지 역	서울	130	39.51
	광역시	199	60.49
가구원수		3.36	1.16
부채여부	있다	184	55.93
	없다	145	44.07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약 67%인 221명이 배우자가 있고, 응답자들의 성별은 여성이 약 56%인 183명으로 남성보다 조금 더 많았다. 연령은 30~40대의 분포가 약 67%인 221명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약 63%로 월등히 많았으며, 직업도 사무/전문/관리직의 비중이 약 60%로 196명을 차지했다. 주택소유는 약 61%인 200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은 서울이 약 40%, 그 외 6대 광역시가 약 60%로 조사되었다. 가구원 수는 4명이 약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명이 약 26%로, 3~4명의 가구원 수가 전체적으로 약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가 누구냐는 질문에 약 64%가 응답자 본인이라고 대답하였다.

1) 재무관리역량 기초통계량

재무관리 역량에 관한 기술통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무관리지식의 경우 수입과 지출관리지식(M=79.41, SD=21.82), 신용과 부채관리지식(M=78.42, SD=23.46) 저축

과 투자지식(M=73.25, SD=21.24)은 재무관리지식 전체의 평균(M=70.29, SD=14.04)보다 높았고, 노후설계지식 (M=65.17, SD=21.04)과 위험관리와 보험지식(M=55.20, SD=21.30)의 하위영역들은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위험관리와 보험지식의 점수는 제일 낮았다.

<표 3-5> 재무관리역량 기초통계량

변 수	N	평 균	표준편차
수입과지출관리지식	329	79.41	21.82
신용과부채관리지식	329	78.42	23.46
저축과투자지식	329	73.25	21.24
위험관리와보험지식	329	55.20	21.30
노후설계지식	329	65.17	21.04
재무관리지식전체	329	70.29	14.04
계획관리태도	329	4.00	.51
신용과부채관리태도	329	2.58	.71
미래대비태도	329	2.70	.70
재무관리태도전체	329	3.09	.42
계획관리기능	329	3.14	.76
금융환경 대처기능	329	3.37	.68
일상적재무관리실천기능	329	3.52	.58
위험관리기능	329	3.38	.71
재무관리기능전체	329	3.35	.58

IV. 분석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1. 재무상담경험 및 재무교육경험별 특성

재무상담 경험 여부에 따른 재무관리역량의 차이와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상담 및 재무교육 경험여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상담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 재무상담 경험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33$, $p<.05$). 남성의 경우는 재무상담 경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관측되어 실제로 재무상담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재무상담경험 없음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관측되어 남성에 비해서 재무상담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남성과 여성 간에 재

무상담의 경험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재무상담 경험여부의 차이를 보면 대졸미만의 경우 재무상담경험 없음이 실제로 높게 나타났다($\chi^2=8.22$, $p<.05$). 대졸미만의 경우 대졸이상보다 재무상담을 더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의 경우는 기대보다 재무상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재무상담 경험여부는 사무/전문/관리직이 재무상담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chi^2=13.21$, $p<.01$). 배우자 유무에 따른 재무상담경험 여부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경우 재무상담경험 있음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은 반면, 배우자가 없는 집단은 재무상담경험 없음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더 높게 나타나 배우자 있는 집단이 배우자 없는 집단보다 재무상담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chi^2=4.97$, $p<.05$). 가계지출은 재무상담을 경험한 응답자가 더 많았고($t=2.83$, $p<.01$) 가계소득도 재무상담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더 많았다($t=3.87$, $p<.01$). 저축액의 경우 재무상담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재무상담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더 많았으며($t=2.72$, $p<.01$) 재무상담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재무상담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월 평균 30만원 가량의 저축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재무상담 및 재무교육경험여부

		재무상담경험			재무교육경험		
		있음	없음	χ^2 / t	있음	없음	χ^2 / t
변수		N(%)/ M (SD)	N(%)/ M (SD)		N(%)/ M (SD)	N(%)/ M (SD)	
성별	남성	85(51.20)	61(37.42)	6.33*	48(55.51)	98(40.33)	6.17*
	여성	81(48.80)	102(62.58)		38(44.19)	145(59.67)	
	계	166(100)	163(100)		86(100)	243(100)	
연령		39.96(9.23)	39.99(9.69)	-.02	40.01(8.73)	39.97(9.71)	.03
교육수준	대졸미만	49(29.52)	73(44.79)	8.22**	19(22.09)	103(42.39)	11.21**
	대졸이상	117(70.48)	90(55.21)		67(77.91)	140(57.61)	
	계	166(100)	163(100)		86(100)	243(100)	
직업	사무/전문/ 관리직	113(68.07)	83(50.92)	13.21**	63(73.26)	133(54.73)	9.84*
	기술/생산/ 서비스직	24(14.46)	27(16.56)		11(12.79)	40(16.46)	
	전업주부	20(12.05)	29(17.79)		7(8.14)	42(17.28)	
	기타	9(5.42)	24(14.72)		5(5.81)	28(11.52)	
	계	166(100)	163(100)		86(100)	243(100)	
배우자 유무	배우자있음	121(72.89)	104(63.80)	4.97*	66(76.74)	155(63.79)	4.84*
	배우자없음	45(27.11)	59(36.20)		20(23.26)	88(36.21)	
	계	166(100)	163(100)		86(100)	243(100)	

〈표 4-1〉 계속

		재무상담경험			재무교육경험		
		있음	없음	χ^2 / t	있음	없음	χ^2 / t
가구원수		3.47(1.17)	3.25(1.15)	1.75	3.44(1.21)	3.33(1.15)	.71
지역	서울	65(39.16)	65(39.88)	.02	34(39.53)	96(39.51)	.00
	광역시	101(60.84)	98(60.12)		52(60.47)	147(60.49)	
	계	166(100)	163(100)		86(100)	243(100)	
주택 소유여부	자가	96(57.83)	104(63.80)	1.23	46(53.49)	154(63.37)	2.6
	비자가	70(42.17)	59(36.20)		40(46.51)	89(36.63)	
	계	166(100)	163(100)		86(100)	243(100)	
가계소득		503.78 (212.31)	415.10 (202.60)	3.87**	492.61 (213.93)	448.25 (210.46)	1.67
가계지출		286.53 (153.22)	243.03 (123.33)	2.83**	268.08 (154.13)	263.88 (135.95)	.24
저축액		124.00 (101.56)	93.49 (102.13)	2.72**	125.63 (99.94)	102.96 (103.38)	1.76
가계부채		2856.20 (44327.34)	3334.35 (4997.95)	-.84	3589.88 (4803.52)	2917.28 (4684.11)	.32

2) 재무상담 경험여부별 재무관리역량

(1) 재무상담 경험여부에 따른 재무관리지식

재무상담 경험여부에 따라 재무관리지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표 4-2〉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 재무상담 경험여부에 따른 재무관리지식

변 수		재무상담 경험있음	n	재무상담 경험없음	n	t
수입지출관리지식	평균(표준편차)	77.41(22.57)	166	81.44(20/90)	163	1.68
신용과부채관리지식	평균(표준편차)	77.56(25.02)	166	79.29(22.51)	163	.70
저축과투자지식	평균(표준편차)	72.29(22.51)	166	74.23(19.88)	163	.83
위험관리와보험지식	평균(표준편차)	55.78(21.78)	166	54.60(20.85)	163	-.50
노후설계지식	평균(표준편차)	65.78(21.36)	166	64.54(20.76)	163	-.54
재무관리지식전체	평균(표준편차)	69.77(14.83)	166	70.82(13.20)	163	.68

(2) 재무상담 경험여부에 따른 재무관리태도

재무상담 경험여부에 따른 재무관리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4-3〉에서 보는바와 같이 하위요인 중 대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신용과 부채관

리태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14$, $p<.05$). 또한 재무상담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재무상담경험이 없는 응답자들 보다 신용과 부채관리태도가 더 높았다.

<표 4-3> 재무상담 경험여부에 따른 재무관리태도

변 수		재무상담 경험있음	n	재무상담 경험없음	n	t
계획관리태도	평균(표준편차)	4.01(.53)	166	3.99(.48)	163	.34
신용과부채관리태도	평균(표준편차)	2.66(.75)	166	2.49(.67)	163	2.14*
미래대비태도	평균(표준편차)	2.74(.77)	166	2.66(.64)	163	1.02
재무관리태도전체	평균(표준편차)	3.14(.46)	166	3.05(.38)	163	1.93

* $p<.05$

(3) 재무상담 경험여부에 따른 재무관리기능

재무상담 경험여부에 따른 재무관리기능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표4-4>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획관리기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7.77$, $p<.001$), 재무상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재무상담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계획관리 기능이 더 높았다. 또 다른 하위변수 중 위험관리기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3.62$, $p<.001$), 재무상담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재무상담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위험관리기능이 더 높았다.

<표 4-4> 재무상담 경험여부에 따른 재무관리기능

변 수		재무상담 경험있음	n	재무상담 경험없음	n	t
계획관리기능	평균(표준편차)	3.44(.65)	166	2.84(.75)	163	7.77***
금융환경대처기능	평균(표준편차)	3.54(.60)	166	3.2(.72)	163	4.70
일상적재무관리실천기능	평균(표준편차)	3.66(.57)	166	3.39(.56)	163	4.33
위험관리기능	평균(표준편차)	3.52(.67)	166	3.24(.72)	163	3.62***
재무관리기능전체	평균(표준편차)	3.54(.53)	166	3.17(.56)	163	6.19

*** $p<.001$

3) 재무교육 경험여부별 재무관리역량

(1) 재무교육경험과 재무관리지식

재무교육 경험여부가 재무관리지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표 4-6>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재무교육경험과 재무관리지식

변 수		재무교육 경험있음	n	재무교육 경험없음	n	t
수입과지출관리지식	평균(표준편차)	75.58(23.32)	86	80.76(21.14)	243	1.90
신용과부채관리지식	평균(표준편차)	77.33(24.14)	86	78.81(23.25)	243	.50
저축과투자지식	평균(표준편차)	73.84(22.07)	86	73.05(73.84)	243	-.30
위험관리와 보험지식	평균(표준편차)	54.42(23.09)	86	55.47(54.42)	243	.39
노후설계지식	평균(표준편차)	66.05(19.00)	86	64.86(21.46)	243	-.45
재무관리지식	평균(표준편차)	69.44(14.04)	86	70.59(13.92)	243	.65

(2) 재무교육경험과 재무관리태도

재무교육경험여부가 재무관리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표 4-7>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재무교육경험과 재무관리태도

변 수		재무교육 경험있음	n	재무교육 경험없음	n	t
계획관리태도	평균(표준편차)	4.01(.52)	86	4.00(.51)	243	.22
신용과 부채관리태도	평균(표준편차)	2.65(.82)	86	2.55(.68)	243	1.01
미래대비태도	평균(표준편차)	2.73(.79)	86	2.68(.67)	243	.55
재무관리태도전체	평균(표준편차)	3.13(.50)	86	3.08(.39)	243	.97

(3) 재무교육경험과 재무관리기능

재무교육경험여부가 재무관리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4-8>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관리기능($t=5.58$, $p<.001$), 금융환경대처능력($t=4.97$, $p<.001$), 일상적재무관리기능($t=4.53$, $p<.001$), 위험관리기능($t=3.76$, $p<.001$)등, 재무교육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재무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재무관리기능전체($t=5.68$, $p<.001$)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8〉 재무교육경험과 재무관리기능

변 수		재무교육 경험있음	n	재무교육 경험없음	n	t
계획관리기능	평균(표준편차)	3.52(.69)	86	3.01(.74)	243	5.58***
금융환경대처기능	평균(표준편차)	3.67(.60)	86	3.26(.68)	243	4.97***
일상적재무관리실천기능	평균(표준편차)	3.76(.56)	86	3.44(.56)	243	4.53***
위험관리기능	평균(표준편차)	3.62(.66)	86	3.29(.70)	243	3.76***
재무관리기능전체	평균(표준편차)	3.64(.54)	86	3.25(.55)	243	5.68***

***p<.001

2. 재무관리역량에 대한 회귀분석

먼저, 재무관리 지식, 기능, 및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독립변수로하여 OLS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와 재무상담 경험여부 및 재무교육 경험여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재무상담 및 재무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만, 재무관리지식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은 회귀계수가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모형이 분석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재무관리기능과 태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분산팽창지수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VIF < 10). 오차항의 동분산성의 가정을 알아보려고 산점도를 살펴본 결과, 오차항의 분포가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아 동분산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차항의 정규성 가정을 알아보려고 왜도, 첨도,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재무관리 기능에 대한 회귀분석

〈표 4-9〉의 모형 1에서 보는바와 같이, 혼인상태, 가구원수, 가계소득, 그리고 부채액이 재무관리 기능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을수록($b=-.182$, $p<.05$), 가구원수가 적을수록($b=-.073$, $p<.05$), 소득이 높을수록($b=.268$, $p<.001$), 그리고 부채액이 적을수록($b=-.016$, $p<.05$) 재무관리기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2는 모형 1에서 재무관리기능에 유의한 변수들과 재무상담 경험여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이며, 재무상담경험과 혼인상태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관찰되었다($b=.291$, $p<.05$). 이 결과는 배우자 없는 집단이 배우자 있는 집단에 비해 재

무관리 기능이 낮지만 재무상담을 통해서 재무관리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원수, 소득, 그리고 부채액은 재무상담경험과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3에서 재무교육과 가계부채는 상호작용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037$, $p<.05$). 즉 가계부채가 많을수록 재무관리기능이 낮지만, 재무교육을 통해 재무관리기능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해석된다.

<표 4-9> 재무관리 기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성별(여성)	-0.038	0.009	-0.005
연령	0.002	0.003	0.003
교육수준(대졸이상)	0.042	0.04	-0.017
직업(기술/생산직)	-0.041	-0.02	-0.018
직업(전업주부)	0.008	0.033	0.036
직업(기타)	-0.206	-0.137	-0.191
혼인상태(배우자없음)	-0.182*	-0.293**	-0.189*
가구원수	-0.073*	-0.096*	-0.095**
지역(광역시)	0.035	0.028	0.039
로그소득	0.268***	0.222*	0.229**
로그부채액	-0.016*	-0.022*	-0.028***
주택소유여부(비자가)	-0.052	-0.089	-0.078
재무상담경험		0.052	
경험x혼인상태		.291*	
경험x가구원수		0.035	
경험x로그소득		-0.003	
경험x로그부채		0.015	
재무교육경험			-0.938
경험x혼인상태			0.217
경험x가구원수			0.064
경험x로그소득			0.14
경험x로그부채			.037*
_cons	2.063***	2.279***	2.328***
r2	0.136	0.218	0.23
F	4.158***	5.086***	5.450***
N	329	329	329

* $p<.05$, ** $p<.01$, *** $p<.001$

4. 재무관리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표 4-10>의 모형 1에서 와같이, 재무관리 지식, 기능, 그리고 부채액이 재무관리 태도 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무관리지식이 낮을수록($b=-.032$,

p<.001), 재무관리기능이 높을수록(b=.182, p<.001), 그리고 부채액이 많을수록(b=.016, p<.01) 재무관리태도가 높았다. 재무관리 지식과 태도의 부적관계는 지식이 높을수록 자기과신(over confidence)성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형 2는 모형 1에서 유의한 변수들과 재무상담 경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이다. 지식과 기능의 재무상담경험과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로그 부채액은 재무상담 경험과 정적 상호작용이 나타났다(b=.020, p<.05). 이 결과는 부채가 많을수록 재무관리 필요성을 인식하여 재무관리태도가 향상되고, 나아가 재무상담을 통해 재무관리태도가 더욱 좋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은 모형 1에서 유의한 변수들과 재무교육경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이며, 재무교육이 재무관리태도에 유의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재무관리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지식	-0.032***	-0.027**	-0.031***
기능	0.182***	0.112*	0.162***
성별(여성)	-0.024	-0.019	-0.03
연령	0.000	0.000	-0.001
교육수준(대졸이상)	-0.004	-0.015	-0.002
직업(기술/생산직)	0.077	0.073	0.076
직업(전업주부)	-0.056	-0.043	-0.063
직업(기타)	0.007	-0.007	-0.001
혼인상태(배우자없음)	-0.092	-0.103*	-0.100*
가구원수	0.000	-0.001	-0.001
지역(광역시)	0.006	-0.001	0.007
로그소득	-0.036	-0.034	-0.038
로그부채액	0.016**	0.005	0.014*
주택소유여부(비자가)	0.022	0.027	0.032
재무상담경험		-0.418	
경험x지식		-0.0007	
경험x기능		0.134	
경험x로그부채액		.020*	
재무교육경험			-0.479
경험x지식			-0.002
경험x기능			0.118
경험x로그부채액			0.007
_cons	3.259***	3.443***	3.348***
r2	0.188	0.206	0.2
F	5.208***	4.461***	4.302***
N	329	329	329

*p<.05, **p<.01,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재무상담 및 재무교육이 재무관리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재무관리역량에 대한 재무상담과 재무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재무상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대졸미만 보다 대졸이상이, 직업에 따라서는 사무/전문/관리직이 재무상담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없는 사람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재무상담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상담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가계소득도 더 높았고, 가계지출도 컸으며, 저축액도 재무상담을 받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월 30만원 이상 더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교육수준, 직업, 배우자유무, 가계지출, 가계소득, 저축액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둘째, 재무상담 경험여부에 따라 재무관리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재무관리태도 중 ‘신용과 부채관리태도’와 재무관리기능에서는 ‘계획관리기능’과 ‘위험관리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재무교육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재무상담 경험여부와 마찬가지로 여성보다 남성이, 대졸미만 보다 대졸이상이, 다른 직업군보다 사무/전문/관리직이 재무교육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재무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재무관리역량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재무교육이 재무관리기능의 총 4개의 하위변수(계획관리기능, 금융환경대처기능, 일상적재무관리실천기능, 위험관리기능)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재무상담 및 재무교육 경험이 소비자재무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재무상담경험이 재무관리기능의 4개의 하위변수 모두에게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재무교육경험을 추가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획관리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변수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재무교육경험 여부에 따른 재무관리기능의 모든 변수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위 연구를 끝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는 바이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재무상담과 재무교육경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졸미만보다 대졸이상이, 가계소득이 높은 가정, 직업으로는 사무/전문/관리직이 재무상담과 재무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상담과 재무교육을 경험하지 못하

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상담과 재무교육을 더 활발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재무설계 전문회사들과 업무협약이 맺어진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 위주여서, 중소기업과 그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재무상담과 재무교육 경험에 소외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을 위한 재무상담과 재무교육을 더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응답자 전체의 재무관리지식 점수를 살펴본 결과, ‘노후설계지식’과 ‘위험관리와 보험지식’의 하위영역들은 재무관리지식전체의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나 ‘위험관리와 보험지식’의 점수는 다른 하위영역들 중 가장 점수가 낮았다. 앞으로 재무상담과 재무교육 간에 ‘노후설계지식’, ‘위험관리와 보험지식’의 부분은 더욱더 신경써서 강조해야 할 듯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재무상담을 경험한 응답자들 중 재무설계 전문회사에서 재무상담을 받았던 비중은 약 10%였으나, 추후 재무상담을 재무설계 전문회사에서 받고 싶다고 한 비중이 36%로 증가했으며 재무상담료 지불의사도 전체 응답자 중 약 55%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전문적인 재무설계회사에서의 재무상담에 있어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유추해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재무상담사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윤리성, 객관성을 높여서 재무설계사들의 양적성장과 질적 성장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2008), 소비자역량지수 개발 및 산출, 보도자료.
- 김성숙(2008), 저소득층가계의 재무문제와 재무상담 수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147-171.
- 김정현(201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현, 최현자(2012),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소비자학연구, 23(1), 229-254.
- 김종모, 박상범(2013), 은퇴준비인식이 경제적 은퇴준비상황에 미치는 영향 - 재무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연구, 24(2), 143-181.
- 김시월, 조향숙(2015), 재무상담 전후의 가계소비와 저축변화에 관한 연구 - 부채 유무 집단을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8(1), 81-106
- 김효정(2008), 경남 및 부산지역 성인의 소비자능력에 관한 연구, 인제농촌, 제2호, 31-43.
- 박종선, 황덕순(2014), 가계주 소득 원천과 소득 분위에 따른 가계 유형별 심적 회계 분석, 소비자학연구, 25(1), 115-143.
- 배순영, 천현진(2010), 2010 소비자역량의 측정 및 평가,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 10-7, 109-110.
-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차경옥, 최현자(2006), 소비자재무설계 및 상담 교과과정의 발전적 소고,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1), 21-39.
- 성영애(2012), 재무교육 및 재무상담에 대한 소비자요구와 선호분석, 소비자학연구, 23(2), 85-105.
- 안창희(2006), 개인재무교육의 효과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창희, 정순희(2009), 자산수준별 재무교육이 재무행동과 주관적/객관적 재무성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2(2), 21-41.
- 오종윤, 최현자(2010), 재무설계를 통한 재무복지의 향상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3(2), 1-18
- 오종윤(2011), 재무설계상담이 가계재무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종윤, 이지영, 최현자, 박주영(2014), 재무설계상담이 재무복지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 종업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구, 36(1), 1-21.
- 이기춘(1999),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문사.
- 이민희, 홍은실(2014), 결혼여부에 따른 여성소비자역량의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43-61.
- 조혜진, 최현자, 김민정(2013), 재무설계비용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결정요인, 소비문화연구, 15(1), 1-20.
- 주소현(2008), 종업원 재무교육과 은퇴설계, 소비자학연구, 19(1), 73-91.
- 주소현, 조영란(2012), 소비자의 재무상담 활용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5(1), 1-20.

최현자, 김민정, 김민정(2008), 재무설계의 유용성: 은퇴에의 적용, Financial Planning Review, 4(1), 109-130.

최윤나(2012), 노인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현자, 김정현(2010),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무관리역량: 일반소비자와의 비교, 소비자학연구, 21(3), 83-105.

최현자, 조혜진(2011), 금융교육과 금융거래경험이 대학생의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2(4), 55-75.

중앙일보(2015.1.15.), 은퇴해도 못 쉬는 ‘반퇴세대’ 왔다.

중앙일보(2015.1.15.), 쏟아져 나오는 50대들, 앞 세대가 못 겪은 고난의 노후.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006) Financial Capability in the UK - Establishing a Baseline, Consumer Research Series, 47.

McClelland, D. C. (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Th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OECD (2003)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DeSeCo) :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 Summary of the Final Report, OECD Press.